

● 중요·특이 개념

1. 갈등론도 사회 각 부분들은 통합되어 있다고 본다. (9p)

- ▶ 단지 그 요인이 상호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것일 뿐.

2. ‘상황 정의’의 정의 (10p)

-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갑에게 을이 두루마리 휴지를, 병이 포크를 선물했다고 하자. 두루마리 휴지와 포크를 받은 갑이 이를 '시험 문제를 잘 풀어라.', '모르는 문제를 잘 찍어라.'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을과 병에게 '고마워.'라고 말했다면, 그는 시험을 앞둔 당시에 두루마리 휴지와 포크라는 상징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해석하거나 규정하고 거기에 부여된 의미에 기초하여 반응을 한다. 이와 같이 구성원 사이에 공유하는 상징을 통해 자신이 접한 상황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을 '상황 정의'라고 하는데, 사람들 간에 상황 정의를 공유할 때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두루마리 휴지와 포크를 받은 갑이 을과 병에게 '시험을 앞둔 나에게 장난 그만해.'라고 하면서 화를 낸다면, 을과 병은 당황할 것이며, 그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갈등론은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1p)

- ▶ 아니 애초에 갈등론은 사회 '문제'라고도 보지 않는다. 억눌린 피지배 계층이 자신의 불만을 뽐어내는 게 왜 '문제'?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능론.

4.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14p)

- ▶ 애초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으로, 기능론이 제공하는 설명은 '일시적인 병리 현상', 갈등론이 제공하는 설명은 '지배 계급 니들이 찍어누르지만 않았어도'.

5. 갈등론은 사회 제도가 특정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15p)

- ▶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 계급'이란 곧 '지배 계급'

6. 양적 연구에서는 경험적 증명이 가능한 것만이 객관적 사실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8p)

▶ 이걸 그냥 알아 두자.

7. 현상의 기술보다는 잠정적인 결론의 타당성 검증에 유용한 것은 양적 연구이다. (21p)

▶ 잠정적인 결론 = 가설

8.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한다. (22p)

▶ 이걸 양적 연구에만 적용되는 특성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연구'를 할 거면 경험적 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9.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양적 연구이다. (22p)

▶ 질적 연구는 내재된 법칙 따위는 사회·문화 현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기에 가설의 수립과 검증을 하지도 않는 것이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하지도 않는 것이고.

10.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25p)

▶ 괜히 '사회과학'이라는 용어가 있는 게 아니다. 양적 연구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

11. 인터넷이나 전화 설문 조사 또한 질문지법에 해당한다. (28p)

▶ 이걸 그냥 알아 두자. 반드시 종이를 가지고 해야만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12. 면접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29p)

▶ '문맹자'란 '글을 못 읽는 사람'이지 '아예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말로 하는 의사소통 자체는 가능하기에 대화를 통한 면접법은 문맹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것.

13. 참여 관찰법은 연구 대상이 관찰자의 연구 의도를 알게 될 경우 정확한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 (30p)

▶ 연구 의도를 알게 될 경우 일부러 그에 부합하는(도와주고자) 행동을 보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일부러 그에 부합하지 않는(방해하고자) 행동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

14. 신문 기사, 인터넷 문서, 논문, 도서, 그림, 동영상 등이 모두 문헌 연구법에서 말하는 '문헌'이 될 수 있다. (30p)

- ▶ '문헌'이라고 해서 반드시 '논문' 등 '격식 있어 보이는' 것들만 문헌 연구법의 수집 대상이 된다고 오해하지 말도록 하자. 심지어 나무위키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문헌 연구법의 수집 대상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15. '연구 결과의 활용' 단계에서는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 (39p)

- ▶ 다만 그 가치 판단은 사회적 가치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주요 문항

15p

정답: ⑤

- 5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에 대한 수행 평가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특징 구분하기

1.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을 2가지 서술하시오.

답란	점수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한다.	0점
사회 규범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고 본다.	1점

2. B와 구분되는 C의 특징을 2가지 서술하시오.

답란	점수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는 사회 체계의 힘을 강조한다.	㉠
(가)	1점

• 채점 기준: 각 서술 내용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함.

- ① ㉠은 '1점'이다.
 ② A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 및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③ B는 인간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C는 사회 제도가 특정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⑤ (가)에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상징 활용에 주목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첫 번째 질문만 가지고 A~C가 전부 특정되는 그 사고 과정을 잘 따라가 보자.

24p

정답: ①

- 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중 하나임.)

<형성 평가>

○ 제시된 '대답'에 맞게 빈칸을 채워 질문을 완성하시오.

대답	대답에 맞는 질문	채점 결과
아니요	A는 B와 달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피상적 연구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는가?	1점
예	B는 A와 달리 (가) 을/를 중시하는가?	㉠

* 교사는 완성한 질문별로 채점하고, 제시된 대답에 맞게 질문을 완성한 경우는 1점, 틀린 경우는 0점임.

<보기>

- ㄱ. A는 B에 비해 인간의 내면세계와 같이 계량화가 어려운 영역의 연구에 적합하다.
 ㄴ. (가)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교감'이 들어가면, ㉠은 '1점'이다.
 ㄷ. ㉠이 '0점'이라면, (가)에 '인간 행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이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수능 때만 되면 등장하는 형태의 채점형 문항. 다중부정에 대해 풀면서 사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익히자.

34p 정답: ④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료 수집 방법 A~D에 관한 수행 평가를 실시하였다. 갑과 을의 응답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단, A~D는 각각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 <질문 1>은 A와 구분되는 B의 일반적인 특징을 서술하는 것인데, 갑의 응답은 옳고, 을의 응답은 옳지 않다. 을은 C의 일반적인 특징인 '가장 엄격한 통계가 가해지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서술하였다. • <질문 2>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고르는 것인데, 갑과 을은 모두 B, C를 제시하여 옳은 응답을 하였다. • <질문 3>은 A, D 중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고르는 것인데, 갑이 ㉠을 제시하여 갑만 옳은 응답을 하였다. < 보기 > ㄱ. B는 A, C와 달리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ㄴ. '다수를 대상으로 통계 처리가 용이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합하다.'는 <질문 1>에 대한 갑의 응답이 될 수 있다. ㄷ. ㉠이 'A'라면, D는 A와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에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ㄹ. ㉠이 'D'라면, A는 D와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

▶ 일명 '교사 평가'를 통해 장난질 치기를 좋아하는 최근 출제 트렌드상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한 형태이니 풀어 보자. 다만 역시 최근 트렌드상 개방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6p 정답: ③	8 다음은 저출생 관련 문제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질문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평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조사 대상은 ○○도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기혼자입니다. 질문 1.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이상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 40세 미만 ③ 40세 이상 60세 미만 질문 2. 우리 ○○도가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중 출산 장려 정책에 지출하는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는 우리 ○○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질문 3.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출산 장려금 인상 ② 경제적 지원 ③ 보육 시설 확충 ④ 양육비 지원 ⑤ 기타 < 보기 > ㄱ. 질문 1은 선택지의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다. ㄴ. 질문 2는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 ㄷ. 질문 3은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

▶ 최근 출제되고 있진 않으나, 출제되기만 하면 높은 오답률을 찍는 유형이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

44p

정답: ①

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 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의 요청으로 대학생들의 카페인 음료 섭취와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카페인 음료 섭취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설문 조사에 응한 ○○ 대학교 학생 500명의 자료 중 일부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20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80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카페인 음료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집중력 부족, 수면 시간 부족이 나타나 오히려 학업 성취도가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결과를 ○○ 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에 제출하였는데 조사에 응한 대학생들이 작성한 학번과 이름 중 이름은 삭제하고 학번만 제공하였고, 학생 생활 연구소는 카페인 음료 섭취량이 많은 학생들에게 ○○ 대학교 부설 학생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이후 해당 연구에 □□ 신문사가 관심을 보이자 원고료를 받을 수 있고 연구 성과를 기사화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다.

< 보기 >

- ㄱ.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 ㄴ.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였다.
- ㄷ.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였다.
- ㄹ. 연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주로 쉽게 출제되는 '연구 윤리' 파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 난도가 꽤 있다. 모래주머니 느낌으로 한 번 풀어 보자.

● 중요·특이 개념

1. 사회화는 제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46p)

- ▶ 어린 시절 훈났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2. ‘대중 매체’ 또한 사회화 기관에 속한다. (46p)

- ▶ 아직 한 번도 기출되지는 않았으나, 꼭 알아두자. 위 개념을 가지고 함정을 판 뒤 ‘있는 대로’ 형식의 문제를 출제한다면 오답률 80% 넘어갈 것이 눈에 선하다.

3. 예기 사회화의 개념 (47p)

- ▶ 예기 사회화는 개인이 현재 속해 있지 않지만 미래에 속하기를 바라거나 속하게 될 집단, 현재는 갖고 있지 않으나 미래에 갖기를 바라거나 갖게 될 직업 및 지위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예기 사회화는 미래의 집단이나 직업, 지위에서 요구되는 행동 방식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개인이 새로운 집단이나 직업, 지위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데 기여한다.

4. 재사회화의 개념 (47p)

- ▶ 재사회화는 이미 습득한 사회화의 내용이 개인의 새로운 집단이나 직업, 지위, 변화한 상황에 부적합하거나 개인의 적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재사회화는 이미 습득한 사회화의 내용을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이 새로운 집단이나 직업, 지위, 변화한 상황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데 기여한다.

5. ‘역할 행동’은 ‘지위’를 전제로 설립한다. (48p)

- ▶ 이걸 딱히 이번 수특에서 강조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원래부터 평가원이 안 건드리고 있던 변별 포인트. 딱히 부여된 역할 없이 했던 봉사 활동 같은 건 역할 행동이 아니며, 당연히 여기서 보람을 느낀 것 또한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 아니다.

6. ‘공식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이라고 부르는 사회 집단을 가리킨다. (57p)

- ▶ 이 역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점인데, 알아 두도록 하자.

7. ‘이익 집단’의 의미 (57p)

- ▶ 하나 이상의 공통된 관심에 기반하여 전체 집단이나 사회에 대해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인 개인들의 결집체를 말한다.

8. 관료제는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58p)

- ▶ '관료제'라는 워딩이 주는 인상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개념상으로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니 알아 두자.

10. 관료제는 산업 사회의 대표적인 조직 유형이다. (60p)

- ▶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아직 기출엔 등장한 적 없으니 알아 두자.

11. 사회 실재론은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되어 있다. (66p)

- ▶ 사회 유기체설은 생물학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사회를 생물 유기체(생명체)에 비유하는 것으로 사회 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시도로 등장하였다. 사회 유기체설에서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관(organ) 또는 세포로 비유된다. 즉, 사회는 생성, 발전하는 유기적인 통합체이고,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로 전체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회 유기체설을 확대 해석할 경우 자칫 전체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12. 사회 명목론은 사회 계약설과 관련되어 있다. (66p)

- ▶ 사회 계약설의 내용 자체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회는 계약에 의해 만들어졌다.'이니 조금만 생각해봐도 개인이 사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회 명목론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3. 일탈 행동과 사회 통제 (68p)

- ▶ 일탈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 통제에는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가 있다. 내적 통제란 사람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회 규범을 내면화하고 또한 자신의 역할을 규범에 맞게 수행하려고 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사회화되지 못했거나 의식적으로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외적 통제가 작동하게 된다. 외적 통제는 일탈 행동을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야단치는 방법과 같은 비공식적 통제와 형사 처벌이나 범칙금 부과와 같은 공식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 주요 문항

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질문에 대한 A~C의 응답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단, A~C는 각각 가족, 대학교, 시민 단체 중 하나이고, 응답은 '예', '아니요' 중 하나이다.

질문	응답 비교
㉠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A와 B의 응답이 일치함.
㉡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가?	B와 C의 응답이 불일치함.
(가)	A와 C의 응답이 일치함.

53p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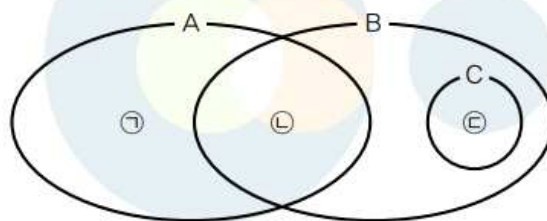
< 보기 >

- ㄱ. A의 ㉠에 대한 응답과 B의 ㉡에 대한 응답은 일치한다.
- ㄴ. B는 C보다 개인의 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ㄷ. C는 A와 달리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 ㄹ. (가)에는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응답'의 일치 여부를 바탕으로 A~C를 확정하는 사고 과정을 한 번 따라가 보자.

04 그림은 사회 집단 A~C의 관계 및 그 사례 ㉠~㉢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임.)



59p

정답: ④

- ① A는 B와 달리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 ② B는 C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 ③ 회사 내 동호회는 ㉠으로 적절하다.
- ④ 시민 단체는 ㉡으로 적절하다.
- ⑤ 이익 집단은 ㉢으로 적절하다.

▶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의 포함 관계를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문항이다. 해당 사항이 최근에 기출된 적이 없어서 기억을 못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위 문항을 풀어봄으로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것으로 하자.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갑~정의 A~C 소속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단, A~C는 각각 ☆☆ 기업, ☆☆ 기업 야구 동호회, ○○시 환경 운동 단체 중 하나이고, 제시된 사회 집단 이외의 사회 집단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갑	을	병	정
A	○	○	○	×
B	○	×	×	×
C	×	×	○	○

(○: 소속 집단에 해당함, ×: 소속 집단에 해당하지 않음)

< 보기 >

- ㄱ. 갑은 정과 달리 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 ㄴ. 병은 을과 달리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 ㄷ. 갑~정 중 자발적 결사체인 공식 조직에 속한 사람은 2명이다.
- ㄹ. 갑~정 중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공식 조직에 속한 사람은 3명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2p

정답: ⑤

- ▶ A~C를 특정하는 사고 과정을 확실하게 알아 두자. 훨씬 심화된 형태로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이 존재하는 문항이다.

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전체 50명의 학생 중 질문 (가), (나)에 대한 응답별 학생 수를 나타낸 것이다.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이고, 응답 결과를 확인해 보니 (가)에 대해서 옳게 응답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옳게 응답한 학생은 30명이다.

(단위: 명)

질문	응답	
	예	아니요
(가) A는 B에 비해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강조하는가?	30	20
(나) B는 A에 비해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강조하는가?	10	40

< 보기 >

- ㄱ.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이다.
- ㄴ. A는 B에 비해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높다.
- ㄷ. B는 A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 ㄹ. B는 A에 비해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4p

정답: ④

- ▶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옳게 응답한 학생 수'에 대한 신유형이다. 위 문항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지만, '학생 수'를 가지고 장난치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의 형태로 출제된다면 정답률 박살날 게 보이니 문제 해결에 더해서 한 가지 질문에만 옳게 응답한 학생, 두 질문에 모두 옳지 않게 응답한 학생의 수까지 한번 판단해 보자.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사회 명목론, 사회 실재론 중 하나임.)

표는 A, B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갑~정의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각 질문에 대한 응답별로 평가할 때 갑~정 중 옳은 응답의 개수는 을이 가장 많다.

구분		B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제도보다 개인의 의식에서 찾는가?	
		예	아니요
A는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축성보다 우선한다고 보는가?	예	갑	을
	아니요	병	정

71p

정답: ④

- ① 옳은 응답의 개수는 정이 가장 적다.
- ② A는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 ③ B는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 ④ A는 B와 달리 사회 규범은 개인들 간의 능동적 상호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 ⑤ B는 A와 달리 사회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모두 합한 것과 같다고 본다.

▶ 역시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형태의 채점형 신유형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해 어떤 학생이 한 가지 질문에만 옳게 답변했는지, 또 어떤 학생이 두 가지 질문 모두에 옳지 않게 답변했는지도 판단해 보는 것으로 하자.

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이고, C, D는 각각 사회 명목론, 사회 실재론 중 하나임.)

교사: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 A, B 중 갑은 A에 대해, 을은 B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갑: A는 사회 구조가 피지배 집단에게 현존하는 사회 질서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불평등한 사회의 변혁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을: B는 (가)
 교사: 갑만 옳게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C, D 중 갑은 C에 대해, 을은 D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갑: C는 사회가 개개인을 초월하여 존재하면서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구속력을 행사하는 실체라고 봅니다.
 을: D는 (나)
 교사: 을만 옳게 발표했습니다.

71p

정답: ④

< 보기 >

- ㄱ. A와 달리 B는 사회 구조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 ㄴ. C와 달리 D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서 개인의 특성을 사회의 특성보다 중시한다.
- ㄷ. (가)에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이 사회 구조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봅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나)에는 '구성원들의 특성이 바뀌면 사회의 특성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적 관점은 아직 출제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문항과 같은 형태로 출제된다면 혼란을 줄 게 분명하니, 미리 한 번 풀어 보자.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는 질문에 대한 학생 갑~병의 응답을 정리한 것인데, 갑, 을은 3개의 질문 중 각각 2개의 질문에 대하여 옳은 응답을 했고, 병은 모든 질문에 대하여 옳은 응답을 하였다.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질문	응답		
	갑	을	병
A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가?	예	아니요	예
B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아니요	예	㉠
C는 (가)	아니요	아니요	㉡

- ① ㉠은 '아니요', ㉡은 '예'이다.
 ② (가)에는 '차별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A는 B와 달리 일탈 행동이 학습에 의해 형성됨을 강조한다.
 ④ A는 C와 달리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중시한다.
 ⑤ C는 B와 달리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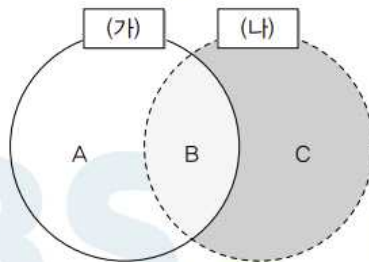
73p

정답: ②

▶ 케이스 분류에 대해 연습하기 좋은 문항이다. 한 번 풀어 보자.

8 일탈 이론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임.)

그림은 질문을 통해 일탈 이론 A~C를 구분한 것이다. 실선의 안쪽에 위치한 일탈 이론들은 질문 (가)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하는 일탈 이론이고, 점선의 안쪽에 위치한 일탈 이론들은 질문 (나)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응답하는 일탈 이론이다.



- (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인가?
 (나):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회의 제공을 중시하는가?

< 보기 >

- ㄱ. C는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른 아노미로 인해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ㄴ. A는 B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행위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ㄷ. B는 C와 달리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중시한다.
 ㄹ. C는 A와 달리 일탈 행동이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4p

정답: ⑤

▶ 점선의 안쪽에 위치한 일탈 이론들은 질문 (나)에 대하여 '예'가 아니라 '아니요'라고 응답하는 일탈 이론이다.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함정이므로 미리 한 번 접해 보자.

● 중요·특이 개념

1. 본능에 따른 행동은 문화가 아닌 것은 문화의 학습성에 해당한다. (76p)

- ▶ 이걸 위 사실 그대로보다는, 실제 문제에 '본능에 따른 행동을 문화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제시된 뒤에 이를 학습성으로 판단하게끔 요구하는 방향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2. 문화의 축적성에 의하면 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지는' 생활 양식이다. (77p)

- ▶ 단순히 세대 간 전승'만'으로는 문화의 축적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3. 자문화 중심주의는 전통문화 계승 및 보전에 유리하다. (78p)

- ▶ 자문화 중심주의(문화 절대주의)라고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4. 문화 상대주의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다. (78p)

- ▶ 문화 상대주의(문화 절대주의)라고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5. 좁은 의미의 문화는 평가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81p)

- ▶ 여기서 의미하는 문화는 '세련된 것', 또는 '멋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6. 문화의 공유성은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81p)

- ▶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이고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것이 문화의 공유성인데, 이는 서로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함축한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문화의 공유성이 작용할 수 있는 것.

7. '반문화'의 사례 (87p)

- ▶ 자주 출제되는 사례로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와 조선 시대 천주교, 동학이 있다. 혹시나 모르고 있었다면 이 기회에 알아 두자.

8. 하위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가 아니다. (89p)

- ▶ 이젠 너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종종 보여서,, 만약 몰랐다면,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 두고 가도록 하자.

9. 반문화도 주류 문화로 변화할 수 있다. (89p)

- ▶ 멀리 갈 것도 없이, 과거에는 노예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반문화에 해당했었다는 것을 생각하자.

10. 문화 전파는 어떤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에 전달되어 '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수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94p)

- ▶ 단순히 전달만 되는 것은 문화 전파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11. 자극 전파와 문화 융합 (95p)

- ▶ 자극 전파(문화 변동의 요인)를 문화 융합(문화 접변의 결과)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극 전파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자극을 받아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인 체로키족의 문자이다. 체로키족은 백인들과 접촉하기 전까지는 고유의 문자를 갖지 못했지만 체로키족 원주민이 백인들과 접촉하면서 알파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자를 고안해 냈다. 이와 달리 문화 융합은 전파된 새로운 문화 요소가 기존 사회의 문화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2. 문화 지체와 기술 지체 (96p)

- ▶ '문화 지체(cultural lag)'는 원래 미국의 사회학자 오그번이 그의 대표 저서 『사회 변동론』에서 현대 문명을 진단하며 사용한 용어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량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교통질서 의식이나 새로운 교통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것,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에너지 소비문화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뒤쳐지는 것, 인터넷 환경은 발전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는 현상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후진국에 선진국의 규범이나 이념이 먼저 도입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에 비해 기술적인 발전이 뒤떨어질 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기술 지체'라고 한다.

● 주요 문항

82p

정답: ①

4 다음 자료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사회에는 소통 도구로서의 언어, 사회 유지를 위한 결혼 제도 등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동시에 각 사회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경험 속에서 다른 사회와 구분되는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 유지를 위한 결혼 제도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결혼의 절차나 내용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A는 이와 같은 문화의 특성을 전제로 해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 ① 다른 문화를 거울로 삼아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② 문화에 대한 연구는 부분보다 전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③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각 사회의 문화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강조한다.
- ④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화의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 ⑤ 특정 문화 요소의 의미를 다른 문화 요소와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학습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문제를 풀어 보며 제대로 익혀 두도록 하자.

83p

정답: ②

5 (가), (나)에 나타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을 당연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유학 온 다른 나라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 듣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되돌아보게 된다.

(나) 최근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적 문화, 육아를 어렵게 하는 직장 문화,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치열한 입시 문화 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층의 문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보기)

- ㄱ. (가) - 자기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 ㄴ. (가) - 문화를 해당 문화가 발생한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 ㄷ. (나) - 문화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갖는 생활 양식임을 강조한다.
- ㄹ. (나) - 각 사회의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위 문항과 동일한 코멘트.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임.)

84p

정답: ③

〈서술형 문항〉

○ A~C의 특징을 각각 2가지 쓰시오. (옳은 특징에 1개당 1점, 틀린 특징에 0점을 부여하며, 총 6점임.)

문화 이해 태도	답란	교사의 채점 결과
A	-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가)	1점
B	- 각 사회의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나)	0점
C	- 자기 문화를 열등한 문화로 간주한다. (다)	2점

- ① A는 B와 달리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
 ② B는 C와 달리 외부 문화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가)에는 '타 사회와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④ (나)에는 '집단 구성원의 결속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다)에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다.'가 들어갈 수 있다.

▶ A~C를 특징하는 사고 과정을 확실하게 알아 두자. 만약 답란이 3개로 늘어나거나, 교사의 채점 결과 중 '2점'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변형된다면 난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1 문화 변동 사례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99p

정답: ③

- (가) 전화 연결 시 재생되는 통화 연결음을 수신자가 선택한 음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톤리핑은 국내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고, 현재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남미 지역에서 한국식 화장법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왜군의 주력 무기인 조총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고 신무기를 필요로 했던 조선이 왜군으로부터 획득한 조총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후 조총은 조선 보병의 주력 무기가 되었다.

〈보기〉

- ㄱ. (가)에서는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ㄴ. (다)에서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ㄷ. (나)는 (다)와 달리 간접 전파 사례에 해당한다.
 ㄹ. (다)는 (나)와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 사례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특히 (다)를 중점적으로 보자. 물론 그 계기는 '임진왜란'이라는 침략이지만, 그로 인한 문화 변동의 사례는 결코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아니다. 이처럼 식민지 또는 침략 등의 사례에서도 강제적 문화 접변이 아닌 경우가 등장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갑국~병국의 문화 변동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1차 변동의 경우 갑국과 병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이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을국에서는 발명이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차 변동은 SNS를 통해 ㉠의 문화 요소가 ㉡ 두 나라에 전해지면서 발생하였다.

구분	갑국	을국	병국
변동 전 문화 요소	a	b	c
1차 변동 후 문화 요소	c	b, d	a, c
2차 변동 후 문화 요소	c, d	b, d	a, e

* a~d는 서로 다른 의복 문화 요소를 의미하며, e는 c와 d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제3의 문화 요소임.

< 보기 >

- ㄱ. ㉠은 '병국'이고, ㉡은 '갑국과 을국'이다.
- ㄴ. 1차 변동 결과 갑국, 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ㄷ. 1차 변동 결과 갑국이, 2차 변동 결과 병국이 기존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 ㄹ. 갑국의 1차 변동은 직접 전파에 의해, 병국의 2차 변동은 간접 전파에 의해 나타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1p

정답: ③

- ▶ 만약 문화 변동이 제시문형이 아니라 퍼즐형으로 제시된다면 변형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태의 문항이다. 확실하게 학습해 두자.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사: 다음 문화 변동 사례를 읽고 파악한 내용을 발표해 보세요.

- (가) ○○국의 국교인 A 종교가 TV 드라마를 통해 □□국에 퍼지게 되었고, 얼마 후 □□국에서는 A 종교와 □□국 고유 종교의 교리가 결합된 새로운 종교 B가 장시되었다.
- (나) 식료품을 제조 판매하는 ◇◇국의 한 기업은 자국에서 전통적으로 짬을 이용하여 생선을 삭혀 먹는 풍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전에 없던 삭힌 생선 통조림을 개발하였고, 현재 ◇◇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갑: (가)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 사례입니다.
을: (가)는 간접 전파, (나)는 자극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 사례입니다.

병: ㉠
교사: 세 학생 중 ㉡ 두 학생만 옳게 발표했네요.

< 보기 >

- ㄱ. ㉠은 '갑, 병'이다.
- ㄴ. (가)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 문화 변동 사례이다.
- ㄷ. (가)와 달리 (나)에서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되었다.
- ㄹ. ㉡에는 '(나)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 사례입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2p

정답: ④

- ▶ 자국의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낸 것은 자극 전파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위 문항을 통해 확실하게 알고 가자.

● 중요·특이 개념

1. 계급론도 경제적 요인 외 다른 요인의 존재는 인정한다. (105p)

- ▶ 다만 다른 요인들은 전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게 계급론의 주장이다.

2.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106p)

- ▶ 많이들 헛갈리는데, 어찌 보면 당연하다.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나타나다고 보고, 이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반영되는 사회라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

3.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106p)

- ▶ 이걸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판단의 영역.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4.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기능론의 입장 (106p)

- ▶ 사회 유기체설에 기초한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가 갖는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능론의 이러한 입장은 유기체의 모든 부분이 전체를 위해 필요하지만 각 부분의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듯이 사회 내부의 모든 직업이 전체를 위해 필요하지만 각 직업의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기능론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 불평등 현상은 직업별 중요도에 대응하여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된 결과이며, 이러한 차등 분배가 유기체로서 사회의 생존과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능론에 따르면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정당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현상이다.

5.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갖는 의미가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107p)

- ▶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갖는 의미가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은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고, 기능론과 갈등론은 모두 거시적 관점이다.

6.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107p)

- ▶ 당연하다. 기능론의 입장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 덕에 각자가 능력과 노력에 맞는 보상을 찾기 때문.

7. 사회 이동(수직 이동)의 가능성이 계층 구조 개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113p)

- ▶ 계층 구조의 개방성은 계층 구조 그 자체(Ex.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헛갈리지 말자. 수직 이동의 가능성에 달려 있는 것이다.

8.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114p)

- ▶ 이걸 그냥 외워두자.

9.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근대 이후 고도 산업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114p)

- ▶ 이것도 그냥 외워두자.

10.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하여 낙관적 입장에서 기대하는 계층 구조는 타원형 계층 구조, 비관적 입장에서 기대하는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다. (114p)

- ▶ 이 또한 마찬가지로 외워둬야 한다.

11.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는 상층이 하층보다 적다. (114p)

- ▶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기만 하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더해 상층 비율이 하층 비율보다 낮아야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12. 절대적 빈곤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124p)

- ▶ 미국에도 노숙자, 거지 있다.

13.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25p)

- ▶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서 상대적 빈곤에 의해서만 유발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14.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와 달리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반영한 기준에 따라 규정된다. (127p)

- ▶ 127p 4번 문제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해당 문제 해설지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 외워 두자.

15. 사회 서비스도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32p)

- ▶ 실제 문제에서는 사회 보험과 엮여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도로 출제될 수 있으니 알아두자.

16. 근로 장려금 제도 (132p)

- ▶ 근로 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해당 가구가 스스로 소득을 늘리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근로 장려금의 합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생산적 복지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 주요 문항

108p

정답: ④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는 질문을 통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단, A, B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이고, ㉠, ㉡은 각각 '예', '아니요' 중 하나이다.

질문	응답	
	A	B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가 갖는 정당성을 강조하는가?	㉠	㉡
사회 불평등 현상이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인정하는가?	㉡	㉠
(가)	㉡	㉠
(나)	㉠	㉠

- ① ㉠은 '예', ㉡은 '아니요'이다.
 ② A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③ B는 직업 간 소득 차이를 사회 문제로 본다.
 ④ (가)에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이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⑤ (나)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형식도 형식인데, 특히 두 번째 질문을 잘 알아 두자.

118p

정답: ③

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임.)

표는 갑국에서 부모의 계층과 비교하여 세대 간 이동 방향 및 거리별로 구분되는 자녀 세대 인구가 자녀 세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 %)

구분		세대 간 이동 방향 및 거리					계
		▼2	▼1	0	▲1	▲2	
자녀의 계층	A	0	5	20	25	0	50
	B	0	0	12	8	0	20
	C	3	6	21	0	0	30
계		3	11	53	33	0	100

* 세대 간 이동 방향은 부모의 계층에 비해 상승 이동한 경우에는 '▲', 하강 이동한 경우에는 '▼'로 나타냄.
 ** 세대 간 이동 거리는 자녀가 부모의 계층으로부터 몇 단계 떨어져 있는 계층으로 이동했는지를 나타냄. 예를 들어 하층인 부모를 둔 자녀가 중층이면 세대 간 이동 거리는 1이고, 하층인 부모를 둔 자녀가 상층이면 세대 간 이동 거리는 2임.

- 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② 부모의 계층이 A인 자녀가 B로 이동한 것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것이다.
 ③ 부모는 하층에 속하는데, 자녀가 상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경우는 없다.
 ④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상층이 가장 낮다.
 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고,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다.

▶ 교육청에서 2018년에 등장한 유형이 2026학년도 수능특강에 등장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같은 수평 이동을 경험한 적 없는 ○○국 국민 100명(현재 계층이 상층인 사람 20명, 중층인 사람 50명, 하층인 사람 30명)을 선정하여 세대 내 이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20년 전 계층을 조사하였다. 표는 같이 파악한 세대 내 이동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단, ○○국의 계층은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인 A~C로만 구분되며, 조사 대상자 100명 중 세대 내 상승 이동한 사람은 10명이다.

(단위: 명)

이동 양상	해당하는 사람의 수	이동 양상	해당하는 사람의 수
A→B	4	B→C	11
A→C	2	C→A	1
B→A	3	C→B	6

119p

정답: ⑤

< 보기 >

- ㄱ. 20년 전 하층인 사람이 현재 하층인 사람보다 많다.
- ㄴ. 세대 내 이동한 사람 중 현재 중층인 사람이 가장 많다.
- ㄷ. 중층에서 하층으로 세대 내 하강 이동한 사람은 11명이다.
- ㄹ. 현재의 각 계층 조사 대상자 중 20년 전과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은 상층과 중층이 같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계층 유형 문항들은 이동이 나타나는 형태면 한 번 다 풀어 보자. 수능에서 다시 어떤 형태로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되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갑국에서는 세대 간 이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와 같다.

(단위: %)

구분	계층 구성 비율		계층 세습률	계층 유출률	계층 유입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상층	20	20	70	㉠	30
중층	30	50	36	40	㉡
하층	50	30	70	㉢	㉣

* 계층 세습률(%)=(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해당 계층 자녀의 수)×100

** 계층 유출률(%)=(부모의 계층과 다른 계층으로 이동한 자녀의 수/해당 계층 부모의 수)×100

*** 계층 유입률(%)=(자신의 계층과 다른 부모의 계층으로부터 이동해 온 자녀의 수/해당 계층 자녀의 수)×100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대 간 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났으나 부모의 계층이 하층인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자녀는 없었다.

119p

정답: ①

- ① ㉠과 ㉣은 같고, ㉡이 ㉢보다 크다.
- ②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보다 많다.
- ③ 부모의 계층이 상층인 자녀 중 중층에 속한 자녀가 하층에 속한 자녀보다 많다.
- ④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 수의 3배보다 많다.
- ⑤ 중층에 속한 자녀 중 부모의 계층이 상층인 자녀 수와 부모의 계층이 하층인 자녀 수가 같다.

▶ 이전 문항과 동일한 코멘트.

126p

정답: ②

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병은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하여 학습한 후,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응답하기로 하였다. 표는 갑~병의 질문과 응답을 나타낸 것인데, 다른 두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옳은 응답을 한 학생은 세 학생 중 ㉠ 한 학생뿐이다.

질문자	질문	응답자		
		갑	을	병
갑	사회적 소수자가 규정되는 기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인가?		예	㉠
을	사회적 소수자는 집단의 특성이 아닌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는가?	㉡		㉡
병	(가)	아니요	예	

(보기)

ㄱ. ㉠이 병이면, ㉠과 ㉡은 모두 '예'이다.

ㄴ. ㉠이 을이면, (가)에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동시에 속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ㄷ. (가)에 '사회적 소수자 집단은 주류 집단에 비해 항상 인구 측면에서 열세에 있는가?'가 들어가고 ㉡이 '예'이면, 갑은 ㉠이 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기존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채점형 문항이 변형되어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이다. 한 번 풀어봄으로써 연습해 두자.

128p

정답: ③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중 하나임.)

㉠갑국의 빈곤 정책은 갑국에서 일반적인 소득을 가진 가구에 비해 소득이 적은 상태에 있는 A 가구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보다 적은 소득을 얻고 있는 B 가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갑국 정부는 B 가구를 대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매 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해 ㉡B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켜 B 탈출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B 가구의 정부 의존 성향을 심화시켜 빈곤을 고착화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표는 갑국 정부가 ㉢B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정책을 실시한 후 나타난 B 탈출 가구 수, B 진입 가구 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단, 2005년에 갑국의 B 가구 수는 20만 가구이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새롭게 생겨난 가구와 사라진 가구는 없다.

(단위: 만 가구)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B 탈출 가구	8	9	10
B 진입 가구	18	19	10

* B 탈출 가구: 5년 전에는 B 가구에 속해 있었으나 해당 연도에는 B 가구에 속해 있지 않은 가구
** B 진입 가구: 5년 전에는 B 가구에 속해 있지 않았으나 해당 연도에는 B 가구에 속해 있는 가구
*** B 탈출률(%)=(B 탈출 가구의 수/5년 전 B 가구의 수)×100

① A는 B와 달리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② B는 A와 달리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부각되는 사회 문제이다.

③ B 가구의 수는 2010년이 2005년보다 많고, 2015년과 2020년이 같다.

④ ㉠은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⑤ ㉡은 ㉢보다 ㉠을 뒷받침한다.

▶ 문항의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 2023년 고3 7월 모의고사 20번과 같이 '사회 복지 제도' 유형의 도표에서 변형되어 등장할 수 있는 형태이니 연습해 두자.

137p

정답: ①

- 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가)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자료 2> 갑국 A 지역의 (가), (나)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t년	t+1년
(가)의 수급자 중 (나)의 수급자 비율	10	25
(나)의 수급자 중 (가)의 수급자 비율	20	20

* 갑국 A 지역의 t년 인구나 t+1년 인구는 200만 명으로 같고, A 지역 인구 중 수급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비율은 t년과 t+1년이 10%로 같음.

< 보기 >

- ㄱ. t년에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수급자 수의 2배이다.
ㄴ. t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 수는 t+1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 수보다 많다.
ㄷ. t년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제도의 수급자 수는 t+1년에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의 4배이다.
ㄹ. t년 대비 t+1년에 복지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 수의 증가율은 150%이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2023년 고3 10월 19번의 변형 문항으로, 얼마든지 심화되어 출제될 여지가 매우 많은 문항이다.

13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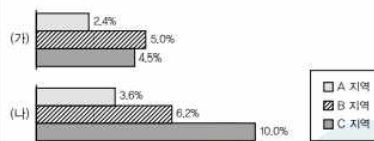
정답: ③

- 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나)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은 물론 재취업 촉진,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A~C 지역별 인구 중 (가), (나) 수급자 비율



*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 인구는 A, B 지역이 각각 10만 명이고, C 지역은 5만 명임.

< 보기 >

- ㄱ. A 지역 인구 중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2.4%이다.
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B 지역 수급자 수는 A 지역 수급자 수와 C 지역 수급자 수의 합보다 많다.
ㄷ.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수급자 수에 대한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크다.
ㄹ. 수급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C 지역 수급자 수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의 2배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인구가 주어지지 않은 채 비율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물어보는 형태(2020학년도 고3 6월 모의 평가 15번)로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이다. 한 번 연습해 두자.

● 중요·특이 개념

1. 기능론은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46p)

- ▶ 사실 사회 변동에서뿐만 아니라, 기능론 자체가 보수적인 측면이 크다. '지금 이대로가 이상적인 상황이니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누가 봐도 보수적인 입장이니.

2. 사회 운동은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147p)

- ▶ 이러한 운동을 바로 '보수주의 운동'이라고 한다.

3. 정보 사회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증가한다. (151p)

- ▶ 전자 민주주의의 발달로 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굳이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주요 문항

149p

정답: ④

- 8 표는 사회 변동 이론 A, B 관련 질문에 대한 학생 갑, 을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순환론, 진화론 중 하나임.)

질문	답변	
	갑	을
A는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하는가?	예	아니요
B는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	아니요	예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요	㉠
(가)	예	아니요
채점 결과	3점	2점

* 교사는 질문별로 각각 채점하고, 옳은 답변은 1점, 틀린 답변은 0점을 부여함.

< 보기 >

- ㄱ. A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ㄴ. B는 사회가 점차 분화되고 복잡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ㄷ. ㉠은 '아니요'이다.
 ㄹ. (가)에는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이 곧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 가장 전형적인 채점형 문항으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의 형태라 실수하기 좋으니 미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풀어 보자.

156p

정답: ③

- 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t년과 t+50년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고, t+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다.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t년이 25%이고, t+50년과 t+100년이 각각 20%이다. t+50년의 노령화 지수는 200으로 t년의 2배이고, t+100년의 노년 부양비는 60이다.

- * 노령화 지수 =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부양 인구(15~64세 인구)} × 100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부양 인구(15~64세 인구)} × 100
 **** 총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 ① 노년 부양비는 t년이 t+50년의 2배이다.
 ② 유소년 부양비는 t+50년이 t년보다 크다.
 ③ 총부양비는 t+100년이 t+50년보다 작다.
 ④ 부양 인구는 t년 대비 t+50년에 10% 감소하였다.
 ⑤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t년이 t+100년보다 높다.

- ▶ 올해 수능특강에 수록된 인구 부양비 문항들은 전부 퀄리티가 괜찮다. 그렇기에 모두 한 번씩은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157p

정답: ②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 하나이다. 갑국에서 t년의 노년 부양비는 80이다.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의 노년 인구는 25% 증가하였고, 을국의 노년 인구는 50% 증가하였다. 단,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frac{A+C}{B}$	1	$\frac{3}{2}$	1	$\frac{3}{2}$
$\frac{C}{A}$	4	2	$\frac{2}{3}$	$\frac{1}{2}$

* 유소년 부양비={유소년 인구(0~14세 인구)/부양 인구(15~64세 인구)}×100
 ** 노년 부양비={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부양 인구(15~64세 인구)}×100

< 보기 >

- ㄱ. t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을국이 갑국의 3배이다.
- ㄴ. t+50년에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갑국과 을국이 같다.
- ㄷ. 갑국은 을국과 달리 부양 인구 수가 t년과 t+50년이 같다.
- ㄹ. t년 대비 t+50년에 노년 부양비 증가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위 문항과 같은 코멘트.

157p

정답: ⑤

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자원 문제, 전쟁과 테러, 환경 문제 중 하나임.)

교사: 각자 서로 다르게 배정받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A, B, C의 해결 방안에 대한 탐구 계획을 말해 볼까요?
 갑: 종교·민족·인종의 차이,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A의 해결 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할 계획입니다.
 을: B의 양상 중 하나인 지구 온난화의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별 온실 가스 배출량과 연평균 해수면 상승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병: 선진국의 자원 재활용 정책, (가) 등을 조사하여 에너지 자원 고갈, 식량 부족과 같은 C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교사: 세 학생 모두 탐구 계획을 잘 수립했네요.

< 보기 >

- ㄱ. C는 A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 ㄴ. B, C 모두 무분별한 자원 남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ㄷ. (가)에는 '각국의 대체 자원 개발 현황'이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서 새로운 형태로 출제된 문항이다. 수능에서 신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 한 번 풀어 보도록 하자.